

노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Economic Condition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생활수준을 지역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소득과 지출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의 보유비율 모두 동부가 읍·면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규모도 동부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후기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¹⁾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생활수준을 지역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노인의 경제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부부, 개인단위의 다각적 측면에서 경제상태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의 개괄적 측면에서 노인의 경제상태를 살펴본다. 가구단위의 분석이 주는 장점은 실제 노인의 경제상태와 후생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은 연 총소득과 소득원천별 소득점유율 및 금액을 통해

노인의 절대적 경제규모를 살펴본다. 그리고 가구 소득에서 노인부부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출에서는 노인의 월평균 지출수준과 함께 노인의 부담이 되는 가구 지출항목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자산 및 부채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가구 단위로 보유여부와 규모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통해 객관적인 측면에서 노후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도 함께 파악하여 노인의 경제상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인의 소득 및 지출

1) 노인의 연 가구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 비율

노인의 가구총소득과 함께 소득원천별로 각각 차지하는 비율 및 금액을 살펴본다. 2014년 노인 실태조사 대상 노인 연 가구 총소득은 2,305.0만원으로 근로소득이 862.0만원(37.4%)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공적이전소득 520.4만원

(22.6%), 사업소득 357.1만원(15.5%),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347.8만원(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연 총소득이 읍·면부보다 642.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0%로 읍·면부의 26.0%보다 14.0%p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소득은 읍·면부가 27.0%로 동부의 12.9%보다 14.1%p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연 가구총소득은 낮으나, 80대 초반의 경우에는 다

표 1. 노인의 연 가구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 비율

(단위: %, 만원)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862.0	357.1	188.5	347.8	520.4	29.8	2,305.0
지역	동부	980.8	317.0	214.1	353.4	559.9	30.4	2,454.7
	읍·면부	471.3	488.7	104.7	329.6	391.3	27.9	1,812.7
연령	65~69세	1,082.7	480.2	246.1	297.6	674.3	43.9	2,823.9
	70~74세	817.2	323.6	194.8	343.9	506.5	20.8	2,201.9
	75~79세	629.2	247.9	149.1	399.0	405.6	17.6	1,849.6
	80~84세	870.2	342.1	136.5	386.0	429.6	27.7	2,192.1
	85세 이상	721.7	286.0	122.2	368.7	396.1	39.2	1,940.3
가구 형태	노인독거	81.3	74.0	70.9	355.1	305.6	22.5	909.7
	노인부부	294.7	330.7	258.3	397.8	633.2	28.9	1,943.8
	자녀동거	2,444.7	637.7	173.8	250.3	502.5	37.5	4,047.8
	기타	482.6	289.6	192.9	443.4	630.0	27.8	2,066.3
연가구 소득	1분위	24.9	21.5	22.8	249.2	233.6	1.5	553.6
	2분위	89.3	72.1	78.2	399.1	323.0	7.6	969.3
	3분위	348.8	196.1	155.7	422.9	402.8	15.1	1,541.5
	4분위	958.8	388.5	259.7	357.2	609.3	33.0	2,606.3
	5분위	2,882.9	1,108.5	428.5	312.6	1,036.1	92.2	5,860.7

2) 소득과 지출은 조사시점에서 작년 한 해(2013.1.1~2013.12.31.)에 대해 조사했음.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37.4	15.5	8.2	15.1	22.6	1.3	100.0(10,423)	
지역	동부	40.0	12.9	8.7	14.4	22.8	1.2	100.0(7,993)
	읍·면부	26.0	27.0	5.8	18.2	21.6	1.5	100.0(2,430)
연령	65~69세	38.3	17.0	8.7	10.5	23.9	1.6	100.0(3,314)
	70~74세	37.1	14.7	8.8	15.6	23.0	0.9	100.0(2,816)
	75~79세	34.0	13.4	8.1	21.6	21.9	1.0	100.0(2,147)
	80~84세	39.7	15.6	6.2	17.6	19.6	1.3	100.0(1,317)
	85세 이상	37.2	14.8	6.3	19.1	20.5	2.0	100.0(830)
가구 형태	노인독거	8.9	8.1	7.8	39.0	33.6	2.5	100.0(2,406)
	노인부부	15.2	17.0	13.3	20.5	32.6	1.5	100.0(4,653)
	자녀동거	60.4	15.8	4.3	6.2	12.4	0.9	100.0(2,948)
	기타	23.4	14.0	9.3	21.5	30.5	1.3	100.0(416)
연가구 소득	1분위	4.5	3.9	4.1	45.0	42.2	0.3	100.0(2,088)
	2분위	9.2	7.4	8.1	41.2	33.3	0.8	100.0(2,085)
	3분위	22.6	12.7	10.1	27.4	26.1	1.0	100.0(2,085)
	4분위	36.8	14.9	10.0	13.7	23.4	1.3	100.0(2,082)
	5분위	49.2	18.9	7.3	5.3	17.7	1.6	100.0(2,083)

주: 1)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80대 이상에서 다소 높아지는데, 이는 80대에 자녀동거비율이 높아 자녀의 근로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성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연 909.7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가 연 1,943.8만원, 기타가구가 연 2,066.3만원, 자녀동거가구는 연 4,047.8만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39.0%, 공적이전소득이 33.6%로 타 소득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 20.5%, 공적이전소득 32.6%로 타 소득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60.4%로 가장 높으며, 사업소득이 15.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6.2%, 12.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가구는 근로소득 23.4%, 사업소득 14.0%, 재산소득 9.3%로 낮지만(독거가구보다는 높은 수준임), 사적이전소득 21.5%, 공적이전소득 30.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

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의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근로소득(49.2%), 사업소득(18.9%), 그리고 공적이전소득(17.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사적이전소득 45.0%, 공적이전소득 42.2%로 소득의 대부분

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가구소득 중 노인부부소득의 비중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³⁾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에서 노인부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가구소득에서 노인부부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80.9%수준으로 80~100%

표 2. 노인의 가구소득 중 노인부부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이하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 비중	
전체	12.1	6.6	5.2	2.6	73.6	100.0(10,423)	80.9	
지역	동부	12.9	7.1	5.7	2.9	71.4	100.0(7,993)	79.4
	읍·면부	9.5	4.8	3.4	1.8	80.6	100.0(2,430)	85.6
연령	65~69세	6.6	6.7	8.1	4.2	74.3	100.0(3,314)	83.8
	70~74세	9.8	7.5	5.1	2.2	75.6	100.0(2,816)	82.6
	75~79세	13.4	6.0	2.5	1.8	76.2	100.0(2,147)	81.7
	80~84세	17.4	5.3	3.0	1.5	72.8	100.0(1,317)	78.3
	85세 이상	30.3	6.5	4.2	1.4	57.7	100.0(830)	65.1
가구 형태	노인독거	0.2	0.3	0.2	0.1	99.2	100.0(2,406)	99.5
	노인부부	0.1	0.5	0.4	0.4	98.7	100.0(4,653)	99.2
	자녀동거	41.7	21.3	15.6	6.2	15.3	100.0(2,948)	37.3
	기타	5.5	7.0	13.4	16.7	57.5	100.0(416)	76.5
연가구 소득	1분위	0.1	0.1	0.7	0.5	98.6	100.0(2,088)	99.3
	2분위	0.7	1.9	3.3	1.8	92.3	100.0(2,085)	95.7
	3분위	6.0	4.8	2.6	2.5	84.1	100.0(2,085)	89.0
	4분위	18.8	12.2	5.9	2.3	60.9	100.0(2,082)	70.8
	5분위	34.8	13.9	13.5	6.0	31.8	100.0(2,083)	49.5

주: 1)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배우자가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3.1.1~2013.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3) 경제적 독립성의 개념은 가구소득에서 노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구 내에서 노인 스스로가 가져오는 소득으로 사적이전,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임.

인 경우가 73.6%, 20% 이하가 1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는 평균비중이 79.4%, 읍·면부는 85.6%로 읍·면부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80~100%도 동부가 71.4%, 읍·면부가 80.6%로 읍·면부가 더 높고, 20% 이하에서는 동부가 12.9%, 읍·면부가 9.5%로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부부의 경제적 독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80~100%에서 65~69세 연령군이 74.3%를 나타냈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7.7%를 나타냈으며, 20% 이하에서는 65~69세 연령군이 6.6%를 나타냈지만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0.3%를 나타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평균비중이 각각 99.5%, 99.2%이며, 자녀동거 37.3%, 기타는 76.5%를 나타냈다. 특히 자녀동거의 경우 20% 이하의 비중이 41.7%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평균비중이 높게 나타나 1분위는 99.3%인 반면, 5분위는 49.5%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및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⁴⁾

노인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3.9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152.3만원, 읍·면부 116.3만원으로 동부가 약 36.0만원 더 많이 지출했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 소비지출이 168.6만원으로 가장 많고, 70~74세 연령군 142.0만원, 75~79세

연령군 122.7만원이지만 80~84세 연령군 132.6만원,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124.6만원으로 U형의 지출구조를 나타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65.0만원, 노인부부가구 128.7만원 그리고 자녀동거가구 소비지출이 231.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구는 144.9만원이다. 또한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상위 분위로 올라감에 따라 소비지출도 높다. 5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05.9만원으로 1분위 52.1만원보다 약 6배 정도 더 높으며, 4분위는 169.4만원, 3분위 112.0만원, 2분위 78.6만원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노인가구에서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35.4%가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관련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으며, 월세 5.1%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 40.5%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관련비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23.1%, 식비 16.2%, 경조사비 15.2%의 순으로 부담이 간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의 부담이 가는 항목으로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가 1, 2위를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부는 읍·면부보다 식비, 월세, 그리고 경조사비가 더 부담이 가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는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조사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관

4)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가구원이 응답한 내용임.

표 3. 노인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특성	월평균 소비 지출 금액	부담되는 지출항목						계(명)	
		식비	월세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전체	143.9	16.2	5.1	35.4	23.1	15.2	5.1	100.0 (10,451)	
지역	동부	152.3	17.7	6.1	33.1	22.2	16.1	5.0	100.0 (8,008)
	읍·면부	116.3	11.3	1.6	43.0	26.3	12.2	5.6	100.0 (2,443)
연령	65~69세	168.6	16.3	5.2	32.5	18.3	18.9	8.8	100.0 (3,316)
	70~74세	142.0	16.8	5.5	35.4	23.4	14.2	4.8	100.0 (2,830)
	75~79세	122.7	15.5	3.9	36.8	28.7	11.9	3.2	100.0 (2,151)
	80~84세	132.6	14.3	4.7	37.8	26.7	14.4	2.2	100.0 (1,319)
	85세 이상	124.6	18.0	6.9	39.3	21.3	13.3	1.2	100.0 (835)
가구 형태	노인독거	65.0	14.6	10.3	41.1	24.6	7.1	2.4	100.0 (2,407)
	노인부부	128.7	14.4	2.9	37.3	27.9	10.1	7.4	100.0 (4,655)
	자녀동거	231.5	18.7	4.2	28.1	15.9	29.0	4.2	100.0 (2,973)
	기타	144.9	26.7	5.9	32.6	13.7	19.3	1.9	100.0 (416)
연가구 소득	1분위	52.1	17.3	9.3	41.3	26.6	4.2	1.3	100.0 (2,088)
	2분위	78.6	14.3	5.4	43.1	28.1	5.6	3.5	100.0 (2,085)
	3분위	112.0	15.6	5.2	37.8	25.9	8.9	6.5	100.0 (2,085)
	4분위	169.4	15.6	3.8	32.6	22.7	18.0	7.3	100.0 (2,082)
	5분위	305.9	17.9	1.6	22.3	12.6	38.6	7.0	100.0 (2,083)

주: 1)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기타에는 부담없음, 교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부채상환 등이 포함됨.

2) 2011년도에는 주거관련비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음.

3) 2011년도에는 교육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비 6.5%, 기타 5.5%임.

련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연령과 N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가구 형태별 특징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으며(41.1%),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보건의료비와 기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에는 식비와 경조사비의 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2분위인 경우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4분위와 5분위의 노인가구는 경조사비와 기타 항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3. 노인의 가구자산 및 부채 현황

1) 부동산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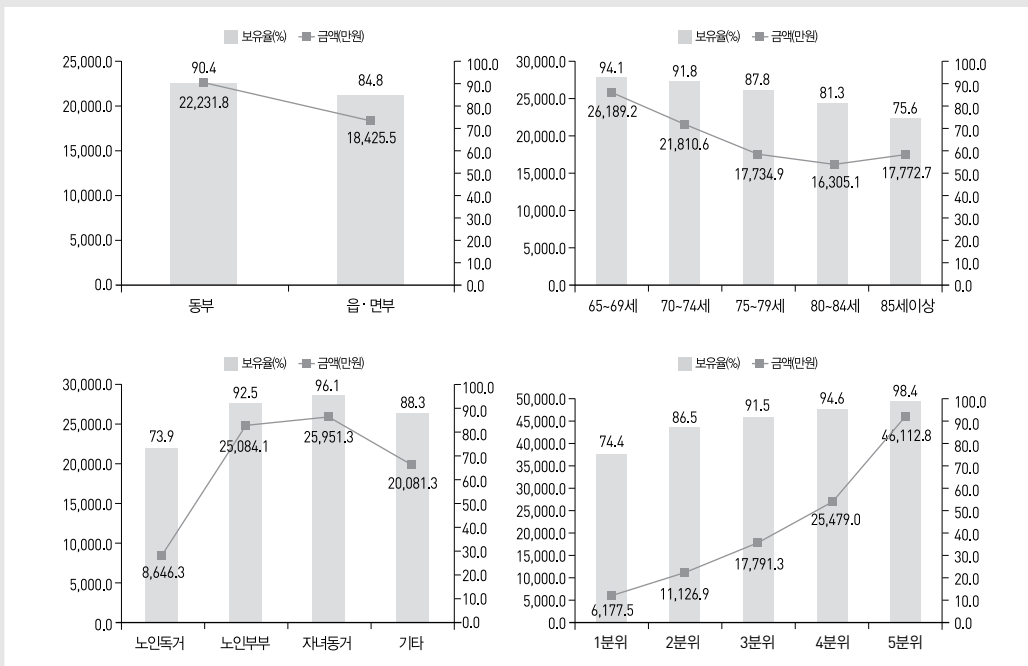
노인 중 89.1%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준은 21,342.3만원이었다. 이를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본 [그림 1]에 따르면,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에 사는 노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율이 90.4%로 읍·면부 8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 역시 22,231.8만원으로 읍·면부의 18,425.5만원보다 높았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은 감소하고,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동산 규모 역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독거의 경우 보유율은 73.9%, 금액은 8,646.3만원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보유율 및 규모가 월등히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보유율 96.1%, 금액 25,951.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거자녀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과 규모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금융자산

노인 중 85.2%는 가구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규모는 3,142.2만원이다. 노인의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와 읍·면부의 금융자산 보유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

그림 1. 노인의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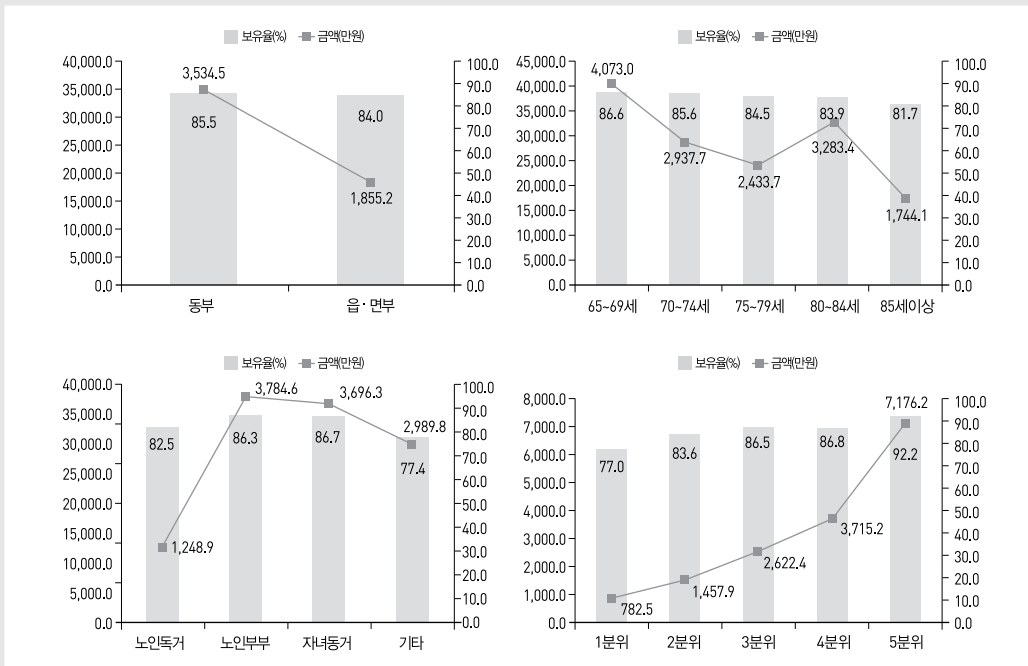
주: 부동산 보유 유무는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 부동산 규모는 무응답 10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은 3,534.5만원으로 읍·면부의 1,855.2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율은 낮게 나타났고, 80~84세 연령군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자산금액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역시 자녀동거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가구형태별로 보면, 기타가구의 경우 77.4%로 보유율이 가장 낮았고, 자녀동거가구가 86.7%로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규모는 노인부부가구가 3,7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독거가구가 1,248.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율과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3)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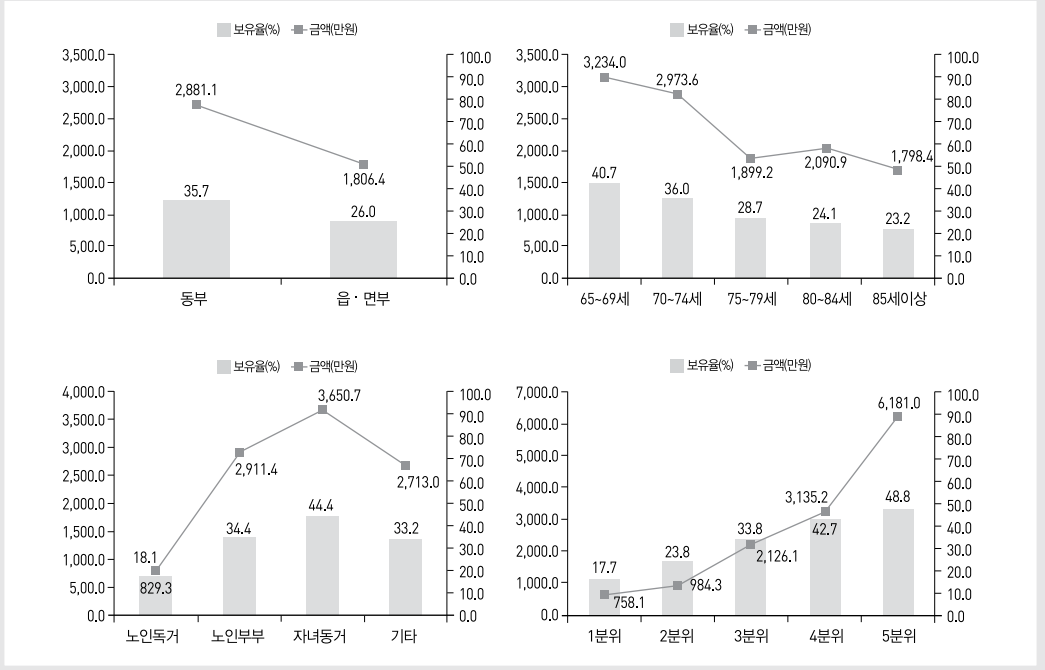
노인의 33.5%는 가구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2,630.8만원이다. 이를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부채 보유율과 규모에서 모두 읍·면부 거주 노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동부: 보유율 35.7%, 금액 2,881.1만원, 읍·면부: 보유율 26.0%, 금액 1,806.4만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채금액에 있어서는 80~84세 연령군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의 경우, 자녀동거가구가 44.4%의 부채보유율과

그림 2.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



주: 금융자산의 보유 유무는 전체 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 금융자산 규모는 무응답 45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3. 노인의 가구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



주: 부채의 유무는 전체 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451명, 부채 규모는 무응답 4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3,650.7만원의 부채규모로 가장 높았다. 노인독거의 경우 부채 보유율 및 금액이 각각 18.1%, 829.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 보면, 가구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보유율과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4. 객관적 경제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

1)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객관적인 경제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노인 개인 차원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5.6%의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고, 의료급여만 받는 노인이 1.6%, 그 외가 92.8%로 나타났다. 이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가 6.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의 의료급여수급자 수준으로 읍·면부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는 큰 차이는 없었다(읍면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 의료급여수급자 1.5%). 연령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70~74세 연령군(6.0%)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의료급여의 경우 80~84세 연령군이 2.6%로 가장 높았고,

표 4.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명)	
전체	5.6	1.6	92.8	100.0(10,451)	
지역	동부	6.1	1.7	92.3	100.0(8,008)
	읍·면부	3.8	1.5	94.7	100.0(2,443)
연령	65~69세	3.6	1.3	95.1	100.0(3,316)
	70~74세	6.0	1.5	92.5	100.0(2,830)
	75~79세	5.8	1.6	92.6	100.0(2,151)
	80~84세	7.3	2.6	90.0	100.0(1,319)
	85세 이상	8.3	1.5	90.1	100.0(835)
가구 형태	노인독거	14.6	2.2	83.2	100.0(2,407)
	노인부부	2.2	1.3	96.4	100.0(4,655)
	자녀동거	2.1	1.2	96.7	100.0(2,972)
	기타	14.9	4.8	80.2	100.0(417)
연가구 소득	1분위	16.0	3.1	80.9	100.0(2,089)
	2분위	8.4	2.3	89.3	100.0(2,086)
	3분위	2.5	1.8	95.7	100.0(2,094)
	4분위	0.6	0.5	99.0	100.0(2,088)
	5분위	0.3	0.5	99.2	100.0(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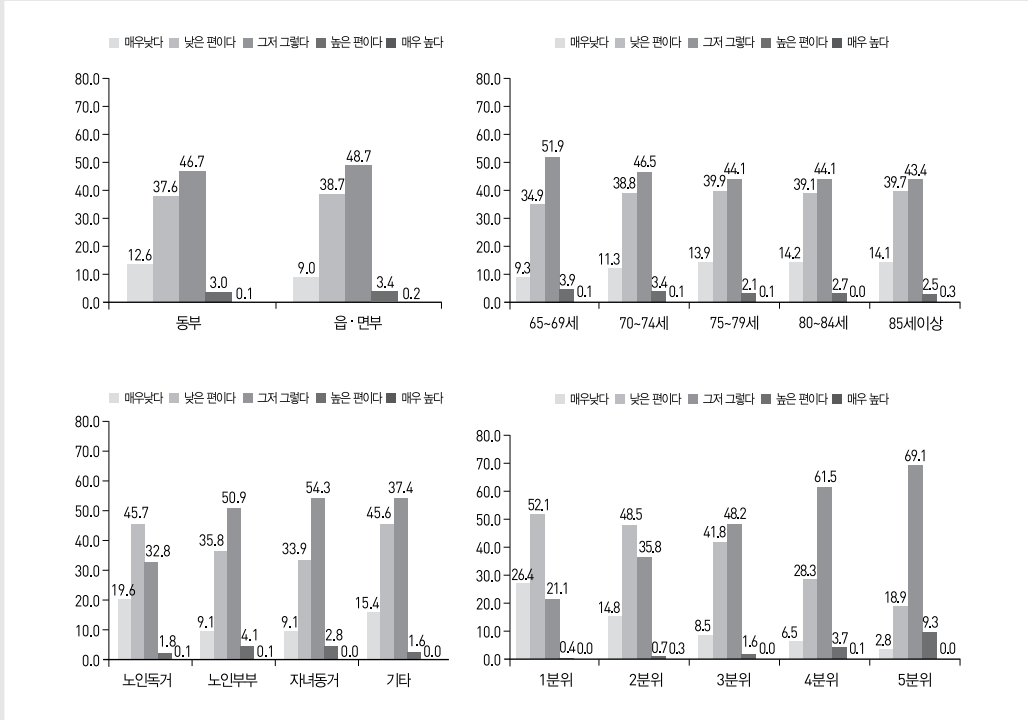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나머지 연령군은 큰 차이는 없었다. 가구형태의 경우, 기타가구의 노인과 독거노인이 각각 14.9%, 14.6%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료급여 역시 절대적 수치에서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수급여부는 2014년 조사시점 기준이고, 가구소득은 2013년 한 해 기준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의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는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 가구원이 응답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매우)낮다가 49.7%, 그저 그렇다 47.2%, (매우)높다가 3.2%로 가구 경제상태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의 경우 50.2%가 (매우)낮다고 응답하였고, 읍·면부는 47.7%가 (매우)낮다고 응답하였으며, 높다는 비율은 읍·면부 거주 가구가 3.6%로 동부 거주 가구보다 미세하게 높았다(동부: 3.1%).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그림 4. 노인의 주관적인 가구의 생활수준(대표 가구원 응답)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주관적 경제상태가 (매우)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65~69세 연령군: 44.2%, 85세 이상 연령군: 53.8%), (매우)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5~79세 연령군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객관적 경제상태와 마찬가지로 기타가구가 61.0%, 노인독거가구가 65.3%로 다른 가구에 비해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매우)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노인부부가구가 4.2%로 (매우)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분위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구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보았고(1분위: 0.4%, 5분위: 9.3%),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매

우)낮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1분위: 78.5%, 5분위: 21.7%).

5. 나가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니계수 역시 0.420으로 전체 지니계수 0.302보다 0.118p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는 빈곤과 높은 불평등

으로 대표된다⁵⁾. 이는 본 조사에서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나 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가구 경제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소득 대체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업주부의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시행되고 노인소득보장 강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가 2012년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정되면서 최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연금제도의 인식 수준이 낮아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미신청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도록 보유한 주택이나 농지를 연금화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확대를 위해 정책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5) 통계청(2014), 2014년도 고령자통계.